

중국 당대문학 중의 지식인 작가론

김경남*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3. 신시기 문학에서 세기말 문학까지
4. 나오는 말

한글초록

20세기 중국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였다. 문학과 작가 지식인 모두 중국혁명의 전개과정과 정치적 풍랑 속에 함께 부침해 온 격동기였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의 정권 수립 과정을 함께 해온 지식인들마저 소외당한 당대중국의 정국의 재편 과정 속에서 작가 지식인들 공허한 정신적 지평, 현실 처지는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문은 20세기 중국 지식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문화대혁명 중에서 지식인 작가들이 처했던 현실적 처지와 그들이 빚어낸 지식인 인물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이후 1980년대 중국 신시기문학 중에서는 어떠한 변화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문혁이 20세기 문화심리구조의 분수령이라는 인식에 의거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대변화가 문혁 10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과

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시하여 보편적 문화심리구조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구축된 가치체계와 신앙은 문혁의 종결과 함께 마치 개혁개방의 조류를 타고 모래성처럼 신속하게 붕괴되었다. 신시기문학 시기에 진입하여 작가는 작가대로 각각의 작품 세계와 문학 장르를 통하여 그 해체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다.

본문은 당대문학 중의 지식인 작가 그리고 작중 지식인 인물형상의 존재와 의식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작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식인 형상에 대한 탐색을 병행한 것은 이것이 작가의 사유와 고뇌의 결정(結晶)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착안한 문제의식은 문혁이라는 정치적 대사건이 초래한 위기와 변화가 지식인 작가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특징적 면모를 보였는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소설장르가 주된 연구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타 장르의 예술작품도 배제하지 않고 고찰하였다.

주제어

지식인 작가, 문화대혁명, 사회주의, 신시기문학, 반성문학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중국문학의 시작 지점을 살펴보면 모두 지식인 작가가¹⁾ 있

1) 지식인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광범하고 추상적이어서, 단정적으로 의미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모호하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정의를 찾자면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또는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727500>)과 "지적 작업에 종사하는 중간적인 사회계층, 곧 일반적으로 지식인"(『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462&cid=40942&categoryId=31636>)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지칭인 작가의 함의는 이러한 원론적

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유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Kang Youwei(康有爲), Liang Qichao(梁啓超), Yan Fu(嚴復), Zhang Taiyan(章太炎), Lu Xun(魯迅), Tan Sitong(譚嗣同) 등의 선구적 지식인들은 중국 전통 지식인들의 유가적 이상 중, ‘겸재천하(兼濟天下)’를 실천하기 위한 사명감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물론 그들의 가치지향과 방향 및 방법은 각이했지만 작금의 중국이 공전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세기 중국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와 곡절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지식인 작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격랑 속에서 부침했던 시기라 하겠다. 중국의 변화는 보통 위기의 시점에서 촉발되었고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변화였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이고 피동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거듭된 침입과 약탈로 문호개방을 비롯한 다방면의 요구에 대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청조는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기만 했다. 1898년 변법자강운동 중에 청조의 광서제(光緒帝)와 Kang Youwei(康有爲), Liang Qichao(梁啓超)를 비롯한 일군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이 당면한 목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치적 포부와 이상을 담고 있는 일련의 개혁적 법령과 정책을 공포하고 시행했지만, 그 불꽃은 타오르기도 전에 꺼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서태후에 의하여 봉건왕조의 상징이었던 과거제도가 1905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과거제의 폐지는 지식인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면한 엄중한 변화

인 정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국의 지식인이라는 의식과 자각 및 사명감을 가지고, 자아·현실·민족·국가·세계에 대한 사고와 실천을 하며, 지식인으로서의 글쓰기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자 위기로서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거제도로는 현재 중국의 처지와 미래 중국의 명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발전 추세와 변화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청조에서도 유학생 파견을 비롯하여 급변하는 20세기 국제사회의 조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 하지만 개혁할 시기를 놓치고 그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청 정부는 이미 시한부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량치차오는 근 50년 간 서구 제국열강의 침입으로 중국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점차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선 제1기에 기물(器物)에서부터 부족함을 알았고, 제2기에 제도 면에서 부족함을 알았으며, 제3기에 문화면에서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²⁾ 이 가운데 제2기는 1894년부터 1917,8년까지의 시간으로서 중국 현대문학의 발생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의 축적이 5.4신문화운동을 야기했고, 중서문화의 교류에 대한 열망과 중국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수천 년의 봉건왕조를 거쳐 나온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가이상과 봉건관념을 자신의 정체성이자 보호막이라 여겼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신의 성장 발전을 옥죄는 껍질에 불과했다.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애벌레 처지를 면하기 어려웠음을 량치차오는 이처럼 뒤늦게 회술했던 것이다. 여기서 뒤늦다고 한 것은 1860년대에서부터 이미 신문잡지의 발간이 이루어졌고, 지면을 통한 이러한 계몽활동이 전개되어 여러 국가 사이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고조, 민지의 계몽, 자아각성 등의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사회적 차원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2) 梁啓超, “五十年中國進化概論”, <http://www.my285.com/xdmj/lqc/057.htm>, (1922).

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제정과 정책 및 조치를 비롯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신문잡지의 발행은 사실 선교사와 외국의 교회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인 자신이 발행한 신문도 상하이에서 1860년대부터 창간되었다. 『중외잡지(中外雜誌)』(1862), 『만국공보(萬國公報)』(1868), 『신보(申報)』(1872)의 창간은 상하이를 중국 신문과 잡지들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신문잡지의 역할은 계몽활동을 통하여 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와 함께 소설이나 논설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들어내어 청말소설을 유행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무술변법이 실패한 후, 몇몇 신문들이 출판금지를 당했지만, 얼마 후 20세기에 들어 중국에는 민간 신문창간의 붐이 일었다. 통계에 따르면 1901년에서 1908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창간된 신문잡지가 302종에 달했고, 1906년에만 상하이에 66개의 신문잡지가 있었고, 간행물이 239종이나 되었다.”³⁾ 신문잡지 창간의 확대와 동시에 현대적 출판사업 역시 변성하였다. 이는 20세기 초기 문화 메커니즘 변화의 일환이다. 만청 정부도 정부 조직구조와 사회제도 면에서 변혁을 꾀하던 터였기에 문학활동가와 신문잡지 및 출판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과 통제 및 관리를 할 관리 부서를 두지 않았다. 당시에 채택한 것은 등록 제였기에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일정한 자금을 모으기만 하면 손쉽게 신문잡지를 창간할 수 있었다.”⁴⁾ 20세기에 들어 청 정부가 취한 개혁 조치로서 우선 과거제의 폐지와 이로 말미암은 일련의 영향이자 정부의 장려 결과로서, “학교의 창학 붐, 유학 붐이 일었다.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의 일본유학생만 해도 8,000여 명

3) 李兴濂, “清朝末年也允许民间办报纸”, <http://bbs.163.com/bbs/zhongmei/611563368.html>. (검색일: 2016.10.17).

4) 李兴濂(2016).

(일설에는 10,000명)에 달하여 이전에 비해 100배나 증가하였다.”⁵⁾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는 필연적으로 현대사회의 분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문학창작 진영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말 과거제 시험을 준비하던 일련의 학자는 자유 지식인(룸펜)으로 재편되었고, 또 다른 지식인들은 관장(官場)에서 자유기고인(프리랜서)의 행렬 속으로 움직였다.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등 현대 도시의 형성 과정 역시 자유기고 지식인의 활동공간의 확장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몇몇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서 말한 룸펜과 프리랜서 지식인들과 함께 문학영역에서 활동하였다. 만청 시기, 4대 소설잡지의⁶⁾ 편집자는 량치차오(梁啟超), 리보위안(李伯元), 칡푸(曾朴), 쉬넨츠(徐念慈), 황모시(黃摩西)와 루쉰 형제가 대표적이었다.”⁷⁾ 문학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변화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고, 독자 진영의 확대와 관념의식의 변화 역시 이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5.4이후부터 20세기말까지 중국 문단에는 어떠한 대사건들이 중국의 지식인 작가들에게 심적 균형의 상실과 가치상실을 비롯한 정신적 변화를 초래했을까? 또 그에 대한 작품 속의 반영은 어떠

5) “清末新政”, http://baike.baidu.com/link?url=Ty_mjb2NYrB3ZK2Qya0O6SPn8e_-oklZpnG6fRsAbsSFkzqy2-prYqX0CaWcY5OWjI7kabsaB_o2h_YUIqmS_ (검색일: 2016.10.17).

6) 만청의 사대소설 잡지는 『신소설(新小説)』(주편 량치차오[梁啟超]), 『수상소설(綉像小説)』(주편 리보위안[李伯元]), 『월월소설(月月小説)』(주편 우웨이야오[吳沃堯], 저우구이성[周桂笙] 등), 『소설림(小說林)』(주편 황모시[黃摩西])를 말한다., http://baike.baidu.com/link?url=oaY-8_BD2cwPFMreNVSyiHc6CE55for4X-4XWYDYAqT9IivMQ1HeUZwgTKRbPPStFYUqBSUQEfNwLKLAK4CwEa (검색일: 2016.10.8).

7) “晚清四大小说杂志”, http://baike.baidu.com/link?url=xUMw-GDnoI4mt7K5r2r7W1UNzQjMTslshovwpeLVRISOWxqItCslkB8_h-lmyN8tcRQqQep8a6-ocDxznzw7QsTa (검색일: 2016.10.17).

했을까? 혹자는 이에 대하여 세 차례 사건과 시간 및 그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첫째, 대혁명 실패 후의 30년대 초에 마오둔(茅盾)의 『환멸[幻滅]·동요[動搖]·추구[追求]』, 『식[蝕]』, 바진(巴金)의 『멸망[滅亡]』, 『신생[新生]』, 예성타오(葉聖陶)의 『예환즈[倪煥之]』, 덩링(丁玲)의 『사페이 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 등과, 둘째, 중일전쟁 종료 후의 40년대 중후기의 바진의 『추운 밤[寒夜]』, 첸중수의 『포위된 성[圍城]』, 루링(路翎)의 『부자의 자식들[財主底兒女們]』 등과, 셋째,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후의 80년대에서 지금까지의 왕명(王蒙), 장셴량(張賢亮), 충웨이시(從維熙), 장제(張潔), 쑹푸(宗璞), 양장(楊絳), 류신우(劉心武) 등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다. 이러한 작가와 작품들은 것처럼 중대한 사건들 속에서 개인이 겪어온 생존 환경과 정신적 공허의 시험에서 문학이 정치 등의 기타 이데올로기 형식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심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였고, 계속해서 사회질서와 인생의미에 대한 성찰과 거듭된 평가는 후대 문학의 자유로운 탐색을 위해서 충분한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주었다.”⁸⁾ 특히, 변혁기 현실 앞에 선 지식인 작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그들을 쉽게 시험과 고민 속에 빠뜨렸고, 심지어는 자아정체성의 혼돈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20세기 중국 지식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문혁 중에서 지식인 작가들이 처했던 현실적 처지와 그들이 빚어낸 지식인 인물형상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이후 1980년대 중국 신시기문학 중에서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문혁이 20세기 문화심리구조의 전환점이라는 인식에 의거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대변화가 문혁 10년의 시간

8) 施戰軍·王偉瀛, “角色自省與刑象尷尬—文化轉型期知識分子文學研究之一”, 『宋江學刊』 (1993), p. 2.

동안 지속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시하여 보편적 문화심리구조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구축된 가치체계와 신앙은 문혁의 종결과 함께 마치 모래성처럼 신속하게 붕괴되었다. 신시기문학 시기에 진입하여 작가는 작가대로 각각의 작품 세계와 문학 장르를 통하여 그 해체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다. 이 모습은 마치 5.4운동 당시 선각적 지식인들의 중서 문화지식의 흡수와 교류의 현장을 연상시키지만, 신시기문학이 그간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에서 야기된 사상해방과 자유 및 민주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 민족과 국가에 대한 신념, 정치와 역사, 인민과 현실에 대한 책임을 깊이 성찰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식인 작가로 새롭게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가와 작품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소설 작품 속의 지식인 인물형상도 작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작가라면 지식인 인물형상 속에 작가 본인 내면의 모습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는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가 적대인가와는 무관하다. 작가는 소설에서 무엇을 쓰는가? 어느 작가의 말처럼, “소설 속에는 사람이 담겨있고 사람의 희로애락이 있으며 그 사람의 처세방식과 인간관계가 들어 있다. 그 외로 다채로운 인생 형식, 인성의 풍부성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는 인물을 그려 내고 빚어냄으로써 인물에게 피와 살 그리고 영혼을 부여하여 인물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며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⁹⁾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작가가 소설에서 써내는 주요한 레퍼토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중 지식인 형상은 작가의 사

9) 劉慶邦, “貼着人物寫”, 『在雨地裏穿行』(百花文藝出版社, 2010), p. 157.

유와 고뇌의 산물이고, 시대와 사회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당대문학 중의 지식인 작가 그리고 작중 지식인 인물형상의 존재와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식인 인물형상에 대한 탐색을 병행하는 것은 이것이 작가의 사유와 고뇌의 결정(結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착안한 문제의식은 문혁이라는 정치적 대사건이 초래한 위기와 변화가 지식인 작가와 작품, 그중에서도 특별히 소설 속 지식인 인물형상의 존재와 관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특징적 면모를 보였는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소설장르가 주된 연구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타 장르의 예술작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문혁을 분기점으로 삼았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문혁 이전까지의 고찰과 신시기문학 이후부터 20세기말까지의 문학을 고찰 범위이자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문혁은 권력에 대한 마오쩌둥의 개인적 집착과 그 주변의 야심가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치적 동란이었다. 계속혁명론이라는 극좌적 정치사조의 광풍이 10년간 지속되면서 주입된 맹목적 관념과 극단적 정치 편향의 조치 및 정책들은 가공할 위력으로 무서운 현실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마오쩌둥의 건국 초기부터 지식인 불신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책들은 지식인을 문혁 기간에 마침내 사회 최하층의 저주 받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지식인 작가 샹오예무(肖也牧)에게 쏟아진 최초의 비판은 1950년 1월, 단편소설 「우리들 부부 사이(我們夫

婦之間)』(『인민문학(人民文學)』1권3기)에 집중되었다. 샤오예무는 중일 전쟁 기간에 상하이에서 내륙의 중국 소비에트 지구로 자원해서 옮겨 온 지식인 작가이다. 그는 신중국 수립 후 도시에 온 간부들 사이에 농촌의 아내를 버리고 도시의 여학생과 결혼하는 등 사상 면에서 몇몇 미묘한 변화를 보면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¹⁰⁾ 이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인 남편 리커(李克)와 농민 출신의 아내가 도시에 이주하면서부터 생긴 모순을 다루고 있다. 즉, 남편은 도시에 돌아온 후 편안하게 적응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줄곧 대립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들이 다투는 것은 크게 문제시되기 어렵겠지만, 서로 다른 출신성분의 남녀 사이의 모순이었기에 이 작품은 주목을 받았다. 이 소설은 출판 후 1년 동안 연이어 쏟아지는 호평과 전제 및 연극과 영화로 개편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작품 속에 드러난 아내의 결점들과 그녀의 도시생활에 대한 마찰을 문제 삼아 곧 비판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대의 저명한 문예평론가 펑쉐펑(馮雪峰)과 덩링(丁玲) 등의 비판과 계속 이어진 혹평 속에 샤오예무는 급기야 「나는 반드시 성실하게 잘못을 교정하겠다(我一定要切實地改正錯誤)」¹¹⁾라는 자아비판의 글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념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고, 사회주의 문예에 대한 개념 정의는 더욱 알 수 없었다. 샤오예무에 대한 비판과 거의 같은 시점에 행해졌던 영화 『우선전(武訓傳)』 비판 운동¹²⁾ 역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10) “萧也牧与新中国文坛第一场批判运动”, <http://cul.qq.com/a/20140803/012832.htm>, 이하 샤오예무와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위의 글 참조.

11) 肖也牧, “我一定要切實地改正錯誤”, 『文藝報』(1951.10.25.).

12) 영화 『武訓傳』은 우선(武訓)의 생애를 내용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우선(武訓:1838-1896)은 산둥 탕이(山東 堂邑 : 현재의 聊城) 출신의 실존인물이

문에 개념의 모호성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950년 12월, 영화 『우선전(武訓傳)』이 상연된 후, 실존인물 우선(武訓)을 교육계의 모범으로 치켜세우며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1951년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에서 마오쩌둥이 작품에서 정치적 사상성과 혁명성이 예술적 교육적 가치에 앞서야 한다며 비판한 후”¹³⁾, 문예창작에 대한 비평기준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사회주의 문예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강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문학계에서는 샤오메이의 소설에 이어 적지 않은 작품들이 비판 받았다. 예를 들어, “소설 주딩(朱定)의 「관 중대장(關連長)」, 바이런(白刃)의 「전투는 내일까지(戰鬥到明天)」, 비예(碧野)의 「우리의 역량은 무적이다(我們的力量是無敵的)」, 류성야(劉盛亞)의 「재생기(再生記)」, 바이랑(白朗)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爲了幸福的明天)」등의 많은 작품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찬양한 작품이지만, 작가가 무산계급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작품이어서 창작 태도가 소자산계급적이고 혁명주의 공산당의 역사관과 배치된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¹⁴⁾

그 외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작품이라면 1956년, 왕명(王蒙)의 「조

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여 구걸을 하며 갖은 고생을 하였으나, 후에 큰 재산을 모아 의학(義學)을 세워 교육계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영화 『武訓傳』이 교육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던 1951년 5월 20일 마오쩌둥의 논설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풍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 13) 마오쩌둥이 비판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우신의 재산이 구걸과 고리대, 아첨(굴종적 태도)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회주의 가치와 윤리관념에 배치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신이 배움을 통한 가난 구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 것은 자선가적 개량주의이며, 저항과 봉기를 통한 혁명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毛泽东, “应当重视电影《武训传》的讨论”, <http://cul.sohu.com/20120322/n338535131.shtml>).

- 14) 김시준, 『중국당대문학사』 (소명출판사, 2005), p. 226.

직부에 온 젊은이(组织部来了个年轻人)』(『인민문학(人民文學)』 제9기)와 같은 해 류빈옌(刘宾雁)의 「다리 공사장에서(在桥梁工地上)」(『인민문학(人民文学)』 제4기)이다. 왕멍의 소설은 조직부에 새로 온 젊은이 린전(林震)과 조직부 부부장 류스우(劉世吾) 사이의 모순을 통해서 공산당 내부에 극복해야 할 관료주의 사상과 해이한 업무풍조를 비판하였다. 이 작품을 썼던 1956년 당시, 왕멍은 청년 지식인 작가로서 중국의 현실 비판을 통해서 미래 조국의 발전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조국이 자신을 길러주고 돌봐준 데 대하여 감사하고 그 보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년 볼셰비키 정신을 가진 공산당원 출신의 작가이다. 작중의 청년 지식인 린전은 당시 그런 그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부(支部) 차원이지만 당내의 부서기 류스우가 보이는 관료적 작품과 보수적 태도 및 기층 간부들의 부패상을 보고 묵과할 수 없었기에 왜소한 열정으로 현실에 적극 개입하지만 현실은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소수이나마 있고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리라 하는 막연하면서도 낙관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류빈옌(刘宾雁)의 「다리 공사장에서(在桥梁工地上)」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공사 교량 건설대 총책임자 뤼리정(羅立正)과 교량 건설대의 현장 책임자 청강(曾剛) 사이의 모순 충돌을 다뤘다. 교량공사 현장의 최고책임자이자 관료인 뤼리정은 사회주의 공업건설의 심각한 병폐라 할 수 있는 성과와 지적 위주의 자기 과시와 무사안일주의를 호신부로 삼는 간부의 전형이라면, 청강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업무풍조의 폐단과 모순을 들추며 과감하게 돌파하는 양심적, 실용적, 개혁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류빈옌은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일선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교량공사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관료주의와 보수주의 및 개인주의 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당내에 만

연해 있는 모순 청산을 위해 현장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쓴 현실 참여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단편소설은 모두 지식인 작가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책임의식 및 사명감에 입각하여 쓰여졌으나¹⁵⁾, 그 때문에 두 사람 모두 20여 년간 크나큰 고난과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다.

중국 학술사상계에 대한 비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찍부터 시작되어 1952년, 위핑바이(俞平伯)의 홍루몽 연구비판과 후스(胡適)의 학술사상 비판 및 1954년, 후핑(胡風) 문학사상 비판 그리고 1957년, 반우파(反右派) 투쟁으로까지 지속되었다. 이로써 문예는 물론 학술사상까지도 그것을 보급하고 유통하는 관료들에 의해 통제되면서 소외되고 관념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예사상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문예에 대한 인식 편차가 점차 극복되었기는 했으나 창작과 비평 심지어 심미안마저도 이데올로기화하는 단순화, 개념화, 도식화 경향이 초래되었다.

주지하듯이 1958년 이후,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낮은 생산력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 모순과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구호와 선전으로써 비약적으로 제고시켜 공산주의 사회로의 조기 진입을 꿈꾸었지만, 운동의 실제적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더구나 당시의 국내와 국제관계의 악화와 3년에 걸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대약진운동은 무참히 실패

15) “진정한 지식인은 형이상학적 열정과 정의, 진리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원칙에 감화되어, 부패를 질책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부당하거나 억압적 권위에 반항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본모습이다.”(爱德华·萨义德 著, 单德兴 译, 『知识分子论』(上海: 三联书店, 2002), p. 14.), 이들은 억압과 부당함에 항거하는 지식인의 진정한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당대중국문단에서 보기 드문 작가군이라 할 수 있다.

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인적 물적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오쩌둥은 정치일선에서 잠시 물러났다. 류사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펑전(彭眞) 등의 개혁과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던 정치인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마오쩌둥의 실정을 만회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그들이 이루어 낸 성과는 마오쩌둥 시대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문예계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잠시나마 약간의 생기를 회복하는 듯했다.

헤게머니가 자신의 존재근거라 할 만큼 마오쩌둥은 철두철미한 정치가였다. 비록 항저우(杭州)에 칩거하고 있었으나 그는 베이징 정치의 동향과 정세에 대한 정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권력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져갈 때, 주변의 강성(康生), 린바오(林彪)를 비롯한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반격을 준비했다. 즉, 당권파들이 실수할 때만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렸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즉,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념과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공산당 내부에 관료주의와 전문 지식인들의 전문가주의적 독선에 문제를 제기하여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여, 인민들의 새로운 개혁과 지속적 혁명을 허락하지 않음을 비판한다”¹⁶⁾는 분명한 명분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모순’과 ‘구시대의 유산’을 철저히 계속적으로 청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들 주로 학생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탈권투쟁을 전개했다. 마오쩌둥의 선동과 지지 속에서 홍위병과 조반파(造反派) 그룹들은 공산당, 기업, 학교 등 권력을 지닌 모든 조직을 타도대상으로 삼아 무산계급 문화대

16) “文化大革命概述”, <http://wenhuadageming.h.baike.com/article-115475.html>. (검색일: 2016.10.17.)

혁명을 전개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오쩌둥이 문혁을 발동시킬 당시만 해도 이념과 명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당시 흥기했던 세계적 조류로서의 혁명 투쟁의 이념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문혁은 그 명분 및 이념과는 별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매력적인 이념과는 대조적으로 그 실행방식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그 논리 역시 맹목적이었다. 둘째, 급변하는 정세와 혼돈 속에서 사인방(四人幫)을 중심으로 하는 야심가들과 특정 개인적 욕심을 위하여 운동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으며, 폭발적인 대중들의 에너지를 제어할 방법과 제도도 없었다. 셋째,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관공서와 공장, 학교가 모두 문을 닫았고, 온건파와 혁명파 간의 무력을 동원한 내전 상황을 연출하며 중국은 마비되었다.”¹⁷⁾

문혁 중의 문예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유일하게 허용된 장르는 장칭(江青)이 만든 ‘혁명모범극(樣板戲)’ 말고는 거론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중국 현대문학을 발전시킨 수많은 지식인 작가들이 반동으로 규정되어 창작은 언감생심이었고, 죄인으로 억류 구금 되었다. 그중 모멸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비명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정치 혁명에 의한 문예의 희생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문혁 기간 지식인 작가는 생존조차도 힘겨웠던 시기였다. 하지만 신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처럼 고통스런 생존 경험과 고난에 찬 문혁 시기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문예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17) 西貳茶舍, “正确看待文革必提的十个问题”, <http://www.mzfxw.com/e/action/ShowInfo.php?classid=11&id=36578>(검색일: 2016.10.17).

3. 신시기 문학에서 세기말 문학까지

문학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당대 중국의 사회적 신앙과 유교적 가치관념 및 정치적 권위를 붕괴시키고 정신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문혁 후, 극좌적 정치관념의 해체 과정 중에서 기존의 사상과 규율에 대한 회의와 의문은 필연적이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사상해방운동이 그 구체적 예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데올로기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동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신시기문학을 언급하자면 우선적으로 ‘몽룡시 운동’에서부터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몽룡시는 “‘문혁’ 초기에 혁명과 선봉의 주력이었던 홍위병들이 1968년 이후, ‘재교육’ 대상이 되어 전국으로 해체되어 상산하향하지만, 기층생활 과정 속에서 사회 진상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사상 면에서 격심한 동요를 겪음으로써 신앙 및 인생의 길에 대해 회의하고 회고하는 정서”에 입각해서 그 심리적 감정적 배경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 최초의 표현은 「나의 마지막 베이징(我的最后的北京)」, 「미래를 믿는다(相信未來)」의 작가 식지(食指)가 북경에서 쓴 시들이었다. 그후, 유치하고 서툰 붓으로 개인의 체험 및 정신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희망을 적은 베이다오(北島), 장허(江河), 양렌(楊煉), 옌리(嚴力), 수팅(舒婷), 구청(顧城) 등의 시인이 사상과 예술형식에서 모두 자신만의 것이자 시대의 모든 지식청년들의 ‘반역’적 기상을 체현한 시들을 창작했다. 이들이 쓴 시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개인적 삶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당시의 보편적 사고를 대표하고 있었다.”¹⁸⁾ 비록 당시에는 비밀스런 지하 창작이 없었지만, 문혁 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재개하면서 몽룡시는 그 영향

력을 급격하게 확산시켰다.

문혁의 종결¹⁹⁾이 곧바로 신시기문학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문혁 직후부터 ‘신시기문학’의 시작까지를 살펴보면 문단에 그 시작이라고 할 만한 뚜렷한 문학적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서 그간의 계급투쟁 중점을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²⁰⁾으로 삼음으로써 강력한 실용주의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四個現代化 :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건설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문예계에 대한 정치권의 화해의 약속도 이어졌다. 1979년 10월, 베이징 중화전국문학예술공작자 제4차 대표자대회 석상에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이전 17년간의 문학예술을 반당, 반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한 문학예술이라고” 부정한 것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앞으로 당은 문학예술에 대해 정치임무에 종속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것”²¹⁾이라며, 문학예술 창작의 자유와 작가의 사상해방을 약속하였다. 1984년 12월부터 1월까지 개최된 작가협회 4차 대회 석상에서 “작가는 제재와 주제 및 예술의 표현기법을 선택할 충분한 자유가 있으며, 자기의 감정과 열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충분한 자

18)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비봉출판사, 2000), pp. 217-218.

19) 문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첫째, 毛澤東의 사망 둘째, 1977년 8월 12일 중공 11기 1중전회에서 주석 華國鋒의 문혁의 종결 공식 선언 셋째, 사인방의 체포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사인방의 체포로 문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20) “實踐是檢驗真理的惟一標準” (『광명일보(光明日報)』 1978.5.11.) 이 사실로써 이후 진리표준 논쟁이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2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대회에 보낸 축사」, 『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文集』, (四川人民出版社, 1980), p. 6;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149에서 재인용.

유가 있다.” “우리 당과 정부, 문예단체에서 전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작가의 창작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²²⁾고 천명하였다. 이는 그간의 정치와의 관계에서 문학이 줄곧 종속적 지위에 있고, 문예창작 및 그 평가기준에서 정치적 기준을 우선시해왔던 기존 입장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었다.

문혁 후 신시기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문단을 살펴보면 작품이 전무하지는 않다. 예컨대, 1977년에 발표된 류신우(劉心武)의 단편소설 「담임 선생님(班主任)」(『인민문학(人民文學)』1977.11)은 신시기문학의 서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주제는 마치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記)」 말미의 “아이를 구하라(救救孩子)”와 유사하지만, 류신우는 “사인방의 우민 교육에 해악을 입은 아이를 구하라”²³⁾고 외쳤다. 담임선생을 맡은 장쥔스(張俊石)가 골칫거리였던 꼬마 건달 쑹바오치(宋寶琦)를 반에 전학생으로 받아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쑹바오치는 도서관의 책에 내키는 대로 낙서를 하자 학급의 단지부서기 셰후이민(謝惠敏)은 쑹바오치와의 계급투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셰후이민 역시 신문이나 서점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을 빨간 책, 독초라고 하고, 꽃무늬 치마라든지 문예소식을 부르주아 계급사상으로 간주한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가는 이는 모두가 사인방 우민교육이 빚어낸 폐해라고 폭로, 고발하였다. 순수한 청소년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야기된 우민교육의 창상을 신시기문학이 해결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22) “중국작가협회 제4차 회원 대표대회에서의 축사”, 『인민일보(人民日報)』 (1984.12.30).

23) “不仅要从事这件事入手，来帮助谢惠敏消除“四人帮”的流毒，而且，还要以揭批“四人帮”为纲，开展有指导的阅读活动，来教育包括宋宝琦在内的全班同学……”(https://book.douban.com/subject/3266390/discussion/17116281/ (검색일: 2016. 10.10.).

이듬해 루신화(盧新華)의 단편소설 「상흔(傷痕)」(『文汇报』1978.8)이 발표되었다. 이 소설은 문혁의 폐해와 참상을 정면으로 고발한 작품이다. 여주인공 왕샤오화(王小華)는 자신을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가 혁명의 배신자라는 말에 모녀간의 정을 끊고, 중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로 집을 나와 자원하여 돌아올 기약 없이 농촌봉사대에 참가하기 위하여 멀리 떠나버렸다.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낸 지 9년 째 되던 해, 어머니의 배신자라는 죄명은 사인방에 의하여 날조된 누명임을 알게 되었다. 왕샤오화는 전보를 받고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죽은 후였다. 문혁이 가족, 연인, 친구 관계마저도 무참하게 짓밟고 붕괴시켰음을 폭로하였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런 비슷한 작품들, 즉 상흔문학(傷痕文學) 계열의 작품들이 1979년부터 쏟아져 나왔다.

지식인 작가의 시대와 역사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반영한 작품은 당대소설문학 중 반성문학(反思文學)의 쌍벽을 이루었던 장셴량(張賢亮)과 왕명(王蒙) 두 작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사람은 모두 1957년도에 우파로 분류되어 개조대상으로 전락하여 20여 년간의 고통과 좌절의 나날을 보낸 공통 경력의 소유자이다. 사실 이들 외로도 적지 않은 작가들이 같은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작가들은 대부분 당시의 주류 문학에 대하여 이단적 견해를 가졌었기에 당대 중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이 강요한 정상적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길러준 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입각하여 고난을 겪고도 여전히 최초의 지향과 소망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이들이 ‘복귀’한 후 창작의 사상적 기점이자, 30여 년에 걸친 고난의 세월과 기층 사회에서 겪은 경험들은 그들이 중국 현실의 진면모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관찰하도록 해주어, 그들 창작에 깊이와 역량을 더해주었다. 그 대표작가로 왕명(王蒙), 장셴량(張賢

亮), 루원푸(陸文夫), 리궈원(李國文), 가오샤오성(高曉聲), 왕펑치(汪曾祺), 류빈옌(劉賓雁), 덩여우메이(鄧友梅), 공류(公劉), 사오옌샹(邵燕祥), 창야오(昌耀), 차이치자오(蔡其矯), 루위안(綠原), 류사허(劉沙河)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문혁시기에만 박해를 받은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²⁴⁾

장센량의 대표작은 「영혼과 육체(靈與肉)」, 『녹화수(綠化樹)」, 『남자의 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등이 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시간도 길었지만, 그 고생의 정도도 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58년부터 1979년까지의 고난생활을 통해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우파 지식인을 그려냈다. 버림받은 지식인은 물론 그 자신이었다. 서북 고원지역에 배치되어 노동개조형을 받게 된 그는 원시적 노동방식과 빈궁한 생활 속에 있는 기층의 인민들에게서 끈질긴 생명 의식과 순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했다. 예컨대, 「영혼과 육체(靈與肉)」 중의 주인공 쉬링궈(許靈均)는 문혁 중 우파 자산계급 지식인으로 적지 않은 수모와 박해를 견뎌 냈다. 이는 그 주변에 그에게 큰 힘을 준 농장의 일꾼들로서서의 평범한 사람들의 우호적이고 따스한 인정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문혁 후 외국에 있던 부친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자신을 지켜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부르주아 근성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마잉화(馬纓花)와 함께 하기 위해서”²⁵⁾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남자의 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중 노동개조범이자 우파 지식인 장용린(章永璘)도 그와 똑같은 우파 지식인이다. 그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노동을 했다. 결국 해골처럼 말랐지만 아사 직전

24) 홍쯔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156.

25) 管衛中, “在與工農相結合的崎嶇道路上--新時期知識分子文學的沉思”, 『社科縱橫』 (1989.5), p. 53.

에 꿈에 그리던 여인 황상쥬(黃香九)를 만나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녀와 결혼도 했다. 하지만 장융린은 장기간의 정신적 억압 결과 성기능을 상실했다. 황상쥬는 외간 남자와 공공연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장맛비가 제방을 무너뜨릴 위기에서 마을 구해내고 그의 성기능도 회복했지만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숭배대상이 아니었기도 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더 큰 사명과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각성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그녀를 숭배 대상이자 자신의 과오를 속죄할 상대로 여겼다. 여기서 보이는 이상과 사명은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엄밀히 보면 현실적 논리와 설득력이 결핍된 묘사로도 보이지만, 당시의 지식인 작가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이상적 경계 설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이자 기호로 볼 수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소설특색이라면 “고난에 대한 서사이다. 그는 고난을 회한과 애상, 경악과 공포의 시선으로 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가 묘사한 고난은 그의 자랑스런 ‘자본’으로 존재한다. 이는 흡사 종교적 박해와 수난을 통한 인류구원과도 유사해보이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고난은 찬미 그 자체를 위해서 서사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장센량에 비해 왕명의 소설은 좀더 사색적, 철학적,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현상에 대한 평가를 단순화하지 않았다. “문혁에 대한 성찰만 해도 혼란 가운데 존재할 만한 질서건립의 가능성을, 암흑 속의 희망을, 동란 책임자들 속의 양해할 만한 점을, 억울하게 박해 받은 이들 속의 반성할 만한 저열한 근성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게 통찰했다.”²⁷⁾ 「나비(蝴蝶)」는 왕명의 문혁에 대한 시각이 잘 드러난 중편소설이다. 지식인 장쓰위안(張思遠)은 깊은 철학적 사고능력

26)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198.

27)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p. 191-192.

낭비하게 되는 비극이다. “예우청으로 대표되는 일부 5.4 지식인의 문화면에서의 비극적 행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다행인 것은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밝은 색을 제공했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서광을 보고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이 정확한 자아위상 정립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왕멍은 이 작품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해부를 시도하고 봉건문화 심층구조의 잔혹성과 야만성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남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스스로를 먹는다는 사실을 소름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³⁰⁾

그 외에도 충웨이시(從維熙)의 경우는 중국당대사를 선과 악, 충성과 간사함 등의 지속적인 이원 대립으로 간주하며 선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난을 견뎌냈고, 그의 작중 주인공 인물 역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루원푸(陸文夫)는 「미식가(美食家)」, 「담장(圍牆)」 등의 작품을 통해서 평범한 인물과 일상적 사건 속에서 역사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문학의 대가이자 20세기 중국의 양심이라 불리운 바진(巴金)이 이러한 작가들과 같은 시기에 발표한 산문집 『수상록(隨想錄)』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 산문집에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 8년 동안 홍콩의 『대공보(大公報)』에 연재한 150편이 수록되어 있다. 사회문화, 정치, 교육 및 문예 등에 걸친 바진 본인의 수감과 감상 및 회고 형식의 글로 문혁에 대한 남다른 반성과 비판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문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고발, 폭로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발생 근원과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

29) http://baike.baidu.com/link?url=JrmzvLOYN3xf38XC0drC4hUx58BQ0B8IbgBM2VnaVfCGZkWWAGNjdrPEMYMKQIyLQEFi9CxcxHEYEFYmGJrEdhWnAKoKLjUbNO2-6ohwmWZ9p7R_msJ1YS1BvM64AZqtHuf0ndU6UGVwQHObtxR4pK (검색일: 2016.10.9).

30)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192.

다. 특히, ‘자신에 대한 해부’ 방식으로써 이러한 사고의 출발점을 삼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혁’ 중에 마땅히 져야 했던 책임에 대하여 침묵을 유지하고 잘못을 감추는 태도에 대하여 그는 엄혹을 넘어 ‘잔혹함’에 가까울 정도로 자아를 해부했다. 바진은 “장기간 진리를 부르짖던 작가가 어찌하여 한 기간 동안에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신이 갈 갈을 잃고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등을 솔직하게 밝혔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이 50, 60년대 각종 운동 중에서 저지른 착오와 그 책임을 규명하였다. 그의 성찰은 결코 자학이 아니었으며, 여기서부터 일찍이 상실하였던 ‘계몽자’의 의식과 책임을 되찾아 다시 세워, 새로운 역사 시기에 국민을 향해 아래와 같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의 민족, 몇 억의 군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동란’에 휩쓸려 들었으며, 광적인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였다.”³¹⁾ ‘작가는 민족의 양심’이라는 말의 함의를 그는 정직하게 실천적으로 보여준 지식인 작가라 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바진을 제외한 왕명, 장센량, 루원푸, 충웨이 등의 작가를 당대 제1세대 작가군이라고 한다면, 당대 제2세대에 해당하는 작가 진영은 지식청년 작가군³²⁾일 것이다. 지청작가군 중 1980년대

31) 홍쯔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200.

32) 지식청년작가란 “작가로서 일찍이 ‘문혁’ 중에 ‘상산하향(上山下乡)’했던 지식청년이거나 작품 내용은 지청이 ‘문혁’ 중에 겪은 생활과 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이들이 도시로 돌아온 후의 경험도 포함), 지청문학은 체재 면에서 소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문학을 ‘지청문학’으로 일컫는다. 이 개념은 1970, 1980년대만의 특정한 역사개념이다. 쿵제성(孔捷生), 량샤오성(梁曉聲), 정이(鄭義) 등은 ‘지청’작가로 불리지만, 수팅(舒婷), 망커(芒克), 뉘뉘(多多) 등을 이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지청문학은 실제로 이미 ‘문혁’기간에 출현하였으나, 이 개념은 뒤늦게 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며, 한 문학유파로서 등장한 것도 역시 ‘문혁’이 끝난 후였다.(홍쯔

중반에 이르면서 중심작가로 부상한 작가들이 이목을 끈다. 왕안이(王安憶), 한사오궁(韓少功), 장청즈(張承志), 스테성(史鐵生), 아청(阿城), 허리웨이(何立偉), 자핑아오(賈平凹), 테닝(鐵凝), 장웨이(張偉), 모옌(莫言), 찬쉐(殘雪) 등은 문혁 중에 개인적 상산하향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성과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다양한 소설의 면모를 선보였다. 이 그룹의 작가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작가의식이 투철하고 명료했음은 물론이지만 편폭의 한계상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그 외로 이미 중년의 나이에 대거 등장하여 창작을 시작한 작가들(장제[張潔], 평지차이[馮驥才], 구화[古華], 가오싱젠[高行健], 다이허우잉[戴厚英], 예웨이린[葉蔚林])이 있는가 하면, 여성 작가들도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문혁 이전까지의 중국당대문학 중의 지식인 작가들이 정치와의 관계 때문에 좌절과 시련을 겪었다면³³⁾, 문혁 이후 문학 속에서는 정치 관념이 신속하게 해체되고 문학이 문학다워지고 자유로워졌지만,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즉, 문학은 시장경제라는 문화적 상업적 구도 속에 존재하면서 지식인 작가들은 몸부림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경제는 이제껏 겪어본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문혁 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치권력의 압력에 따라 영욕의 희비가 엇갈린 시기였다면,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상품경제의 조류가 거세지면서 문학마저도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초의 시장경제가 야기한 ‘비즈니스

청, 『중국당대문학사』 (2000), p. 203.)

33) 이때까지만 해도 문학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고 ‘순결한’ 정신활동의 산물로 인식하면서 문학과 상품 ‘경제’와의 거리 구분이 명확했던 시기였다.(홍쓰청 저,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중, 제1장:마오쩌둥의 문학관과 문학정책, 제2장: 규범과 통제 참고.)

몹(經商熱)과 ‘돈을 벌기 위한 취직과 이직 몹(下海熱風)’은 중국정치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화, 지식, 예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사회적 기풍이 고착되면서 인문정신의 쇠락과 위기가 초래되었다. 금전과 재산을 포함한 경제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상업화의 조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면서 금전의 정치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도전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대격변은 문예계에도 그 영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치적 통제가 확연히 축소되면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운신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확대된 반면, 문예는 상업화시대 조류 속에서 다원적 요소의 한 구성인자로만 자리매김 되었다. 기존의 찬란했던 문예의 지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문학 작품 역시 창작과 출판 유통 과정에서 상품화하면서 베스트셀러를 향한 각축전으로 급변하였다. 이는 1993년 말, 매체개혁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시행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독립채산제 정책의 시행결과라 할 수 있다. “언론, 잡지, 출판매체 및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은 문학의 가속적 분화를 촉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장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순문학과 대중문학, 소비성 문학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시장법칙에 따른 냉정한 생존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³⁴⁾ 통폐합되거나 도산하는 출판사, 잡지가 속출하게 되자 문학잡지 및 단행본을 포함하는 작품의 출간 같은 문학의 출판, 보급, 유통의 전체적 구조망이 이해타산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편되었고 작가들은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통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창작의 제약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대부분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는 ‘잘 팔리는’ 것을 위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34)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2006), pp. 110-112.

4. 나오는 말

20세기 중국의 지식인 작가의 존재와 관념은 20세기 현대 중국의 혁명의 전개과정에 따라 부침하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지식인 작가의 운명과 현실 처지는 당대문학의 그것처럼 정치로부터의 간섭과 종속 속에서 신음하며 몸부림쳤다. 특히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의 지식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강압적 조치와 정책으로 당대 중국의 모든 분야의 지식인들은 적지 않은 고초를 비껴가기 어려웠었다.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은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문예, 심지어 문화관념마저도 정치색으로 도배되면서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재편되었다.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한 주류 작가와 작품들은 마치 한 시대의 유행가처럼 그 시대의 흔적과 숨결을 담아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 시대만의 틀 거리에 국한되면서 사장되고 말았다. 진정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존재와 가치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진정한 작가의식을 가진 지식인 작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특별한 작가들은 줄을 세우는 획일적인 정치 규범과 문예를 거부했다.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극과 불행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애정이 있으며, 공산당 관료 내부에도 부정과 부패, 관료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와 해이하고 방만한 업무기풍 등이 엄연하게 존재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샤오예무, 왕명, 류빈옌 등의 젊은 지식인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우파로 분류되어 적지 않은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

신시기문학의 시작을 알렸던 몽룡시나 상흔문학과 반성문학 작품

을 보면 그 시대의 고통과 희망을 볼 수 있다. 몽룡시의 작가들은 시대와 정치 및 역사에 대한 강렬한 반역정신이 담긴 시를 통해서 고통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고, 청년과 중년의 지식인 작가들은 각각의 고통스러웠던 역사적 정치적 교훈에 입각하여 문혁이 빚어낸 고통과 창상을 써냈다. 청년 지식인 작가들은 열정적으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억울함에 절규하고 고향을 지르면서 문혁과 사인방의 죄상을 폭로 고발했고, 중년의 작가들은 이지적이고 냉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성찰로 그 터무니없던 정치 동란 발생의 원인과 내력을 규명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미래 중국 사회에 대한 낙관과 인민과 민족, 역사와 국가에 대한 남다른 책임의식, 사명감, 신념의 중요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거세진 물질화, 배금주의, 상업화 조류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팽창과 상업주의와 다원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문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대중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 역시 확실히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축되었다. 그 이면에는 중국정부가 문화출판에 대하여 독립채산제 정책이 있었고, 이는 곧바로 문예계의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여파로 많은 출판사들이 파산하거나 도산하였고,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돈이 될 만한 것만을 창작하는 작가들을 대거 양산하게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문단 역시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지식인 작가 역시 시대의 무상함 속에서 인문정신의 쇠락과 위기를 현실로 직시하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의 지식인 작가들은 현재 자신만의 글쓰기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당면한 현실의 제반 현상과 모순을 마주해서 이전

의 지식인 작가와는 다른 방법과 관점에서 시대 사회의 목소리와 관
념을 담아낸 작품을 써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흡사
21세기 중국 사회 문화계의 무한하고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 같기도
하지만, 이는 자본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서울: 동녘, 2006).
- 홍쓰청,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0).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462&cid=40942&categoryId=31636>
- 爱德华·萨义德 著. 單德興 譯. 『知識分子論』 (上海: 三聯書店, 2002).
- 劉慶邦. “貼着人物寫”. 『在雨地裏穿行』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0).
- 陈晓明. 『中国当代文学主潮』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3).
- 管衛中. “在與工農相結合的崎嶇道路上--新時期知識分子文學的沈思”. 『社科縱橫』 (1989,5).
- 管衛中. “在與工農相結合的崎嶇道路上--新時期知識分子文學的沈思”. 『社科縱橫』 (1989,5).
- 施戰軍, 王偉瀛. “角色自省與刑象尷尬—文化轉型期知識分子文學研究之一”. 『宋江學刊』 (1993).
- 肖也牧. “我一定要切實地改正錯誤”. 『文藝報』 (1951,10,25).
- 『光明日報』. (1978,5,11).
- 『人民日報』. (1984,12,30).
- “文化大革命概述”. <http://wenhuadageming.h.baik.com/article-115475.html>.
- “晚清四大小说杂志”. http://baik.com/link?url=xUMw-GDnoI4mt7K5r2r7W1UNzQjMTslhovwpeLVRLSOWxqltCsIkB8_h-lmyN8tcRQQep8a6-ocDxzonzw7QsTa
- “清末新政”. http://baik.com/link?url=Ty_mjb2NYrB3ZK2Qya0O6SPn8e_-oklZpnG6fRsAbsSFkzcy2-prYqX0CaWcY5OWjl7kabsaB_o2h_YUIqmS_
- “萧也牧与新中国文坛第一场批判运动”. <http://cul.qq.com/a/20140803/012832.htm>.
- 李兴濂. “清朝末也允许民间办报纸”. <http://bbs.163.com/bbs/zhongmei/611563368.html>.
- 毛泽东. “应当重视电影《武训传》的讨论”. <http://cul.sohu.com/20120322/n338535131.shtml>.

西矣茶舍. “正确看待文革必提的十个问题”. <http://www.mzfxw.com/e/action/ShowInfo.php?classid=11&id=36578>

梁启超, “五十年中國進化概論”. <http://www.my285.com/xclnj/lqc/057.htm>, (1922).

王蒙, “蝴蝶”. <http://zhidao.baidu.com/question/132682707.html?fr=iks&word=%CD%F5%C3%C9+%BA%FB%B5%FB%D4%AD%CE%C4&ie=gbk>

http://baike.baidu.com/link?url=oaY-8_BD2cwPFMreNVSyiHc6CE55for4X-4XWYDYAqT9IivMQ1HeUZwgTKRbPPStFYUqBSUQEfNwLKLAK4CwEa

http://baike.baidu.com/link?url=oaY-8_BD2cwPFMreNVSyiHc6CE55for4X-4XWYDYAqT9IivMQ1HeUZwgTKRbPPStFYUqBSUQEfNwLKLAK4CwEa

https://book.douban.com/subject/3266390/discussion/17116281/2016,10,10http://baike.baidu.com/link?url=JrmzvLOYN3xf38XCodrC4hUx58BQ0B8IbgBM2VnaVfCGZkVWAGNjdRpEMyMKQIyLQEFi9CxcxHEYEFYmGJrEdhWnAKoKlJUbNO2-6ohwmWZ9p7R_msJ1YS1BvM64AZqtHuf0ndU6UGVwQHObtxR4pK

A Study of the intellectual writers in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Kim Gyeong Nam(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20th Chinese history have face up with many changes and crises in past ever centuries. The intellectual writers of Chinese contemporary lieterature didn't have frees form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ir policies, however they explored and published numerous outstanding work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intellectual writers in chinese how to they survive, what they think through and after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In addition, this study try to discuss what the intellectual writers was and their status at the characters contemporary literature. They searched through the mainstream literature of contemporary China such as trauma literature on the great cultural revoluion, root-searching literature, Their novels stand out owing to neat logic and diverse changes and foundations saturated with opulent and incessant imaginations which propel the novel's narrative. With these efforts, they have been able to maintain their spirit as a old generation writer, their literary works display a series of characteristics---attention to history, making inquiries on deep human nature, pondering on culture and civilization, retaining poetic and natural style of writing. They have established their own individual artistic style and enjoyed broad attention of literary circles. These works are also characterized by experiments with new modes of narration and plots, and also by story lines built on detailed and sophiticated narration. These traits

were not achieved overnight. At an early stage of their career, they explored such themes as history, philosophy and the relation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Key words

Intellectual Writers, Great Cultural Revolution, Socialism, New Era Literature, Reflective Literature